
편집인 인사말

정병훈
편집인

진주시는 2019년 10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새로운 회원으로 선정될 때부터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 저널을 발행하려고 계획하였습니다. 이 저널은 공예 및 민속 예술 분야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 도시들의 지식, 경험, 그리고 실천을 공유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관련 학계, 연구기관, 한국-UCCN 자문위원회, UCCN 도시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나는 많은 국내 혹은 해외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네트워크에 속한 창의도시들의 포괄 포인트들에게 이 저널에 대해서 알렸고, UCCN 웹사이트에 “논문 공모” 소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창의도시들이 고맙게도 우리의 제안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7개 도시가 문화유산과 활동에 관한 글을 투고해 주었습니다. 4명의 학자들이 “팬데믹 상황에서의 문화예술 활동: 과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나는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제기한 물음에 대한 대답을 원고로 투고해 주신 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저널에는 5개의 학술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2017년에서 2019년까지 매년 진주시에서 개최된 창의도시 국제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나는 치앙마이 대학의 사회연구소 소장인 위라룬 분야수랏 교수님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 분은 편집위원회에 참여하시고, 학술논문을 투고하셨으며,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 저널이 간행되는 데 기여하셨습니다.

나는 이 저널이 도시 간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창의도시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 및 평가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저널이 궁극적으로는 UCCN미션 선언문에 언명된 핵심 목표들을 지역 및 국제 수준에서 실현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저널은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 무형 유산의 창의적 전승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창의산업 진흥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는 학술논문들을 게재할 것입니다. 또한 공예 및 민속 예술 분야의 회원 도시에서의 현재와 미래의 이슈에 대한 토론, 인터뷰, 북 리뷰, 그리고 새로운 실천과 이벤트에 대한 보고를 실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창의도시들이 학술 논문, 짧은 기사, 리뷰, 그리고 공예 및 민속 예술 관련 소식을 투고함으로써 이 저널에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축하글을 보내주신 에르네스토 오토네 유네스코 문화담당 부국장님,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권두논문을 써 주신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님과 이 저널에 대한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규일 진주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진주시 장 축사

조규일
진주시장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을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UNESCO 창의도시들 간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창간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저널의 국내외 편집위원님들, 참여하신 모든 창의도시 관계자 분들, 그리고 정병훈 UNESCO 창의도시 추진위원장님의 모든 지원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시는 2019년에 UNESCO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진주는 특히 교육뿐 아니라 문화유산의 국제교류에 뛰어난 창의적 자산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공예 및 민속예술은 항상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으며, 진주검무, 진주오광대 등 다양한 민속예술과 소목, 장도, 장식 등의 전통공예,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진주논개제 등 전통축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국제적 수준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전통지식의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도시의 창의성과 문화산업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창간호가 창의도시들 간 공유된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현방안을 도출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번영을 이끌 소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창간호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담론과 실천이 더욱 풍부해지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저널 발간을 축하드리며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네스코 본부 축하

에르네스토 오토네 R.
유네스코 문화담당 부국장

공예와 민속 예술은 늘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문화와 창의성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 우리를 과거와 연결시켜 주고, 우리의 일상적 삶을 풍요롭게 하며,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 줍니다. 공예와 민속예술은 가치있는 노하우, 기법과 생활유산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젊은이들과 모든 연령의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과 손, 그리고 가슴을 모아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46개의 도시들이 힘을 모아서 문화와 창의성을 통해서 도시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견인하도록 합니다. 그 중 49개의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들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와 사회의 활성화에 본질적인 요소인 문화를 유지하고,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고무하고 촉진하는 데 공예와 민속 예술의 독특한 잠재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공예와 민속예술을 기리고, 보호하고, 재창조하는 도시들을 지원하게 될 이 저널을 창간한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의 실행에 찬사를 보냅니다. 나는 매년 간행될 이 저널이 -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대한 본질적인 구성요소이자 기여자인 - 공예와 민속예술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 공동체의 노력을 더욱 지원해 나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 발간 축하

김광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진주의 ‘공예 및 민속예술 국제저널’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제사회는 전세계 빈곤의 종식과 모든 사람들의 안녕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11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의 달성에 있어서는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이 매우 막중합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안전하고 회복탄력성을 지니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하여 창의성과 문화산업을 도시발전 계획의 중심에 둔 도시들의 모임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들은 교류를 통해 각 도시의 문화와 창의성의 역할에 대한 모범사례를 주고 받으며, 지속가능발전 11번 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2004년 출범 이래, 2020년 현재 전 세계 85개 회원국 246개 도시가 가입한 네트워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중 49개 도시가 공예와 민속예술 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회원도시로 가입한 진주는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학술교류는 물론 여러 도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 회원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국제저널’을 창간하였습니다.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국제저널’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회원도시의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지식의 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서로의 물리적 거리를 가깝게 이어줄 유용한 통로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네트워크 매거진’ 발간을 축하하며, 앞으로 공예와 민속예술을 분야를 넘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저널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